

### 우리협회 창립6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추호석)가 지난 9월3일 창립6주년을 기념해 서울 신라호텔에서 “항공우주산업, 21세기를 연다”를 주제로 기념행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창립기념행사와 심포지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언론계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항공우주산업계의 향후 미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추호석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과거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항공우주산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산업저변 확대 및 고용창출에 성공 오늘날의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IMF 경제위기 극복과 국력신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을 반드시 육성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가오는 21세기를 항공우주산업의 진로를 모색하고 그 발전모델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임내규 자본재산업국장도 축사에서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항공기를 포함한 10여개 업종에 대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항공기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키위해 항공우주산업발전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항공기 품질인증체제구축, 부품소재산업육성, 해외전시회 참여, 민·관합동산업협력단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체류중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 법안에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동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항공기산업 육성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서울에어쇼'98에서

는 다방면의 협력이 확대되어 항공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상 4명, 협회장상 6명, 공로패 6명 등 총 16명이 그동안 항공우주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이어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제1부 ‘세계 항공우주산업 구조전망과 산·관 협력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는 미 맥켄지사의 피자로 이사와 이스라엘 엘빗사의 랜 갤리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제 2 부는 ‘미래 자유세계의 군사력발전 요구사항’의 주제로 미 록히드 마틴사의 고든 보웬 조사분석담당이사과 제2주제 발표자로 미 미트레사의 신디아 윌리엄스 이사가 미 국방예산의 집행추이와 연구개발에 투자에 대하여 전망했다.

마지막 제3부는 ‘한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방위산업학회 백영훈 회장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전략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홍창선교수는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능력의 향상여하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표적 자본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주제 발표이후 패널토론 시간에는 패널 토론자의 발표와 참석자의 질문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우리협회, 창립6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서울에어쇼, 155개 업체, 75대 항공기 선보일 예정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까지 서울공항에서 동북아 최대의 항공축제로 펼쳐질 서울에어쇼 '98 개막이 카운터 다운에 들어갔다. 현재 참가하는 항공우주업체와 항공기가 결정되었고 행사의 규모와 진행일정이 확정되어 개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세계 18개국에서 155개 항공우주산업관련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항공기 생산업체를 비롯하여 항공전자, 항법 및 통신, 항공무장, 방공무기 등의 항공 산업체와 관련단체, 연구소 등이 참가하여 최신 항공정보와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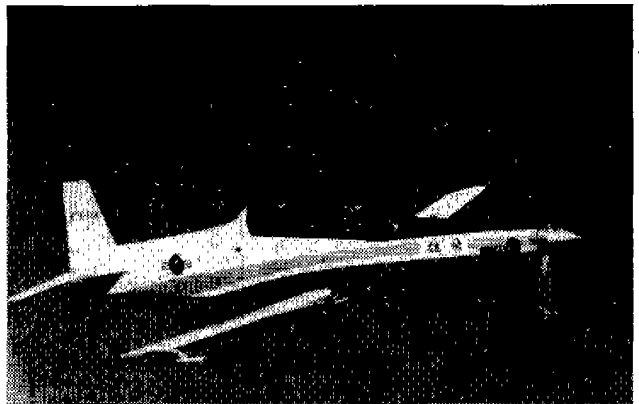
항공기의 전시와 시범비행 참가는 7개국 60개 기종 75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여 96년에 비해 더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훈련기 KTX-1이 강력한 터보프롭엔진을 장착하고 초등훈련기로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비행을 보여준다. 코브라 기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수호이기를 비롯하여 라팔, F/A-18, F-16등의 첨단 전투기가 화려한 전투기동으로 행사장 상공을 누비게 되고, 활주로가 필요없는 수직이착륙기 해리어(AV-8B)가 국내최초로 서울공항에서 그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고정익 항공기 뿐만 아니라 회전익인 헬리콥터의 시범 비행도 다양하다. 탱크킬러로서 명성을 떨쳤던 아파치가 그 위용을 선보이며,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Mi-26헬리콥터가 행사장 상공을 선회한다. 또한 유로콥터의 야심작인 BO-105가 국내업체와의 공동생산을 계기로 국내에 선보이게 되며, Su-29 훈련기가 보이는 공중 비상탈출 시범

은 관중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에어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곡예비행은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팀이 그 몫을 맡았다. 블랙이글은 창설 후 지금까지 쌓아온 기량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난도의 곡예비행을 선보인다. 하늘에 수놓는 한쪽의 수목화로 불려지는 블랙이글팀의 곡예비행은 과거 외국 에어쇼팀의 비행과목만을 답습해 왔던 것과 달리 한국적 정서와 A-37항공기의 비행성능에 적합한 기동을 개발하여 서울공항 상공에서 화려하게 수놓게 된다.

행사기간중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중에 있다. 소년소녀 가장들과 모범시민, 그리고 입장권 예매자중 추첨을 통하여 10월 30일 군헬기(HH-47)와 군수송기(CN-235, C-130)를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공군곡예팀 블랙이글 조종사들의 사인회와 경비행기로 세계일주에 도전한 이주학씨의 사인회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에어쇼 '98 행사 예매권은 현재 상업은행 전국 각 지점을 통해 성황리에 판매중이며, 서울에어쇼 '98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ARS(02)706-0500이나 인터넷 [www.seoulairshow.com](http://www.seoulairshow.com)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훈련기 KTX-101이 이번 서울에어쇼에서 멋진 시범비행을 모일 예정이다

### 항공기체 3사들, 단일법인 설립작업 본격화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기 제작업체 3사가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외국 기관에 자산평가를 맡기는 등 단일법인 설립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항공 3사는 현물출자를 통해 동등 지분구조로 단일법인을 설립하려면 보유자산과 사업권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 최근 평가기관을 선정해 실사에 들어갔으며 이와 함께 단일법인 설립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항공의 경우 국제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평가를 의뢰, 자산실사에 착수했다. 골드만 삭스는 유화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삼성중합화학의 자산도 평가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외부감사인인 산동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KPMG에 자산 사업권 등의 회계처리 관련업무를 맡기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자산부문에 대해선 지난 10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시중이다. 현대우주항공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자산평가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외국 전문기관과는 손잡지 않은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단일법인을 세운 뒤 외국업체들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업체들이 방산 물량을 확보 가능한 수준에서 지분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공 단일법인이 유치할 수 있는 외자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항공산업육성과 방산 물량을 감안할 때 외국업체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법인은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밑그림에 따라 정책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F-22전투기 가격인하노력 결실

F-22 전투기의 생산성개선계획이 동 전투기의 추정생산단가를 인하시키고 있다고 록히드 마틴/보잉/P&W사로 구성된 설계팀이 밝혔다.

현재 생산업체들은 F-22의 개발비와 지원비용의 절감을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들은 생산성(producibility)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에 따라 339대로 예정된 F-22의 생산비 절감액은 총 2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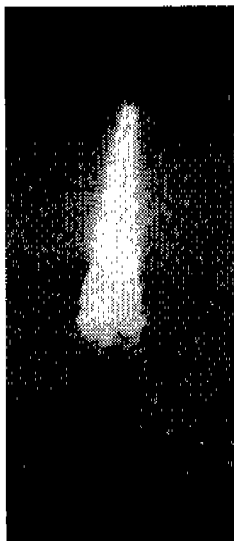
기대되고 있다. 이 생산성 개선계획은 전체적인 생산비 절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계획은 약 1백20억 달러를 절감해서 F-22프로그램의 총 사업비를 미공군의 사업예산인 4백7억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별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F-22의 사업비는 약 4백60~4백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나 F-22 프로그램 책임자인 톰 버베지는 F-22의 생산성개선계획에 따라 전체 비용을 미공군의 예산범위내로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미국에서 발사한 군사용과 산업용 로켓이 연이어 공중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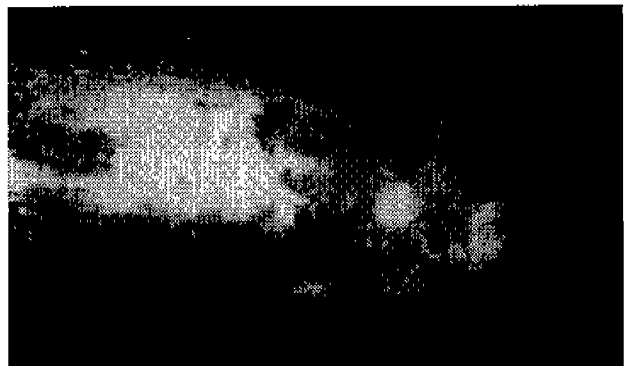
지난 8월 12일 10억달러에 달하는 첩보위성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록히드 마틴의 군사용 로켓 타이탄 4A가 발사후 40초만에 폭발했다. 사고 로켓은 상승 중 피치각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플로리다 해안으로 향하다 고도 6천 미터에서 폭발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후속기인 타이탄 4B의 발사는 올 12월과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로켓에는 센타우르스 상단부(Upper stage)와 함께 미 NRS(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소속의 Vortex 전자첩보위성이 실려 있었다. 이번 사고는 총 22회의 타이탄 4A 발사 중 일어난 두 번째 사고로서 첫 번째 사고는 지난 93년 상단부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한편 다음에 발사하기로 예정된 타이탄 4B는 3회 발사 모두 성공했다. 또한 타이탄 4A의 발사 실패후 14일만인 지난 8월 26일 미국 케이프 케너베럴에서 처녀발사된 보잉사의 산업용 로켓인 델타 III가 발사후 70초만에 폭발했다.

로켓 자체의 손실 외에도 로켓 내부에 탑재되어 있던 휴즈사에서 제작한 팬암셋 갤럭시 X 위성의 손실에 따른 피해액



미 록히드마틴의 타이탄 4A가 발사후 40초만에 폭발했다



은 2억7천7백만 달러에 달한다. 보잉사에 따르면 델타 III로켓은 발사후 55초부터 고장이 발생해서 비정상적인 회전운동을 시작했으며 그 뒤 10초 동안은 피치와 요 진동이 계속되었고 발사후 70초에 로켓내부에 탑재된 자폭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는 발사시에 점화된 6개의 고체연료식 보조 부스터가 분리되기 10초 전에 발생했으며 이 부스터들이 분리되고 나면 나머지 3개의 부스터가 점화되어 발사후 159초에 다시 분리되도록 되어 있었다.

폭발 장면을 촬영한 화면에는 폭발 직전 로켓이 16km상공에 도달한 순간부터 폭발의 화염이 관측됐으며 이 때 로켓 주변에서는 보조 부스터의 불꽃으로 보이는 5개의 작은 밝은 점과 폭발의 화염보다 좀더 작은 화염과 파편들이 관측된 것으로 보아 여섯 번째 고체연료부스터의 기능고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잉사에서는 아직 사고원인을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폭발한 델타 III 로켓은 기존의 델타 II 로켓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신형 모델이며 직경이 커진 1단 연료탱크, 대형화된 보조부스터, 대형 복합소재 페어링 등이 주로 달라진 점이다.